

그리스도의 편지 디도

Titus, a Letter of Christ

고린도후서 7:5-7, 13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9월 8일 설교

⁵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름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⁶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⁷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¹³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마음을 담은 편지

성경을 문학 장르로 구분하면 역사도 있고 법조문도 있고 시도 있고 교리를 설명하는 논술도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지 아십니까? 권수로 따질 때 가장 많은 건 편지입니다. 서간문이지요. 구약에는 없지만 신약성경은 로마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조리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몇 권이지요? 예순여섯 권. 그 가운데 스물 두 권이 편지니까 성경 전체의 삼분의 일이 편지입니다.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도 편지로 시작하니까 그것까지 치면 더 많아집니다.

편지가 뭐니까? 편지는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을 전하는 거지요. 마음을 담습니다. 말하자면 대화인데 마주보고 나누는 대화와 달리 생각을 많이 또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쓰는 사람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지요, 받는 사람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고 또 여러 번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직접 보는 대신 마음에 떠올리며 생각을 전하고 또 받는 게 편지입니다.

요즘은 편지의 홍수입니다. 재래식 편지는 거의 사라졌지요? 대신 다른 편지가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컴퓨터로 이메일이라는 걸 주고받았는데 요즘은 휴대폰으로 문자나 카톡까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다 편지입니다. 종이는 아니지만 글을 씁니다. 직접 통화하는 것보다는 번거롭지요? 그렇지만 보기 싫은 얼굴 안 보고도 말을 전할 수 있어 좋고 또 보고 싶은 사람한테도 말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는 게 없어 좀 아쉽지요. 재래식 편지는 내용도 물론 남지만 종이도 남고 글씨도 남고 가끔은 그림도 남는데 지금은 남겨둘 만한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도를 만나러

오늘 본문이 바울의 글입니다만, 바울은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바친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 복음부터 전했습니다.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전도할 기회가 생겼는데도 그만두고 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막 믿으려는 참인데 다른 불일이 있다고 그냥 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세 해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소송을 거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일이 있습니다. (행 20:1).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일단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항구 드로아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물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고후 2:12). 복음의 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열린 문을 놔두고 다른 데로 갑니다. 이유가 뭐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고후 2:13).

전도하려고 산다던 사람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서도 떠나 버렸습니다.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유를 보니 디도를 못 만나 마음이 편치 못했다 합니다. 아마 디도가 드로아에 있을 걸로 예상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대로 그렇지 사람 하나 없다고 하던 전도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전후 사정을 살펴보니 디도를 만나려고 한 건 고린도 교회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옛날 버릇을 못 버려서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를 갖고 서로 잘났다 싸웠고 심지어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에게 모멸감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일단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행 19:22; 고전 4:17). 그런데 디모데는 다른 할 일도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고전 16:10). 그래서 급한 마음에 편지를 한 통 길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그 편지입니다. 주로 꾸중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살아있는 몸이 어떻게 세 조각 네 조각 나누어질 수 있느냐 하고 꾸짖고,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라 가르치고, 교인 가운데 음란이나 우상숭배 같은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기가 가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자들을 벌주고 잘못을 바로잡겠다 했습니다 (고전 4:19; 11:34).

그런데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갖 안 좋은 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내가 또 꾸중만 잔뜩 담은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혹 내 편지를 보고 기분 나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고 쓴 편지인데 내용이 너무 강하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디도를 보내고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또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다른 일도 있었지만 디도한테는 고린도 교회로 곧장 가라 했습니다. 가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바울의 편지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는지 아니면 바울의 명령을 순종하여 교회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왔는지 살펴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송을 걸었을 즈음 디도는 돌아오고 있어야 맞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소아시아로 건너오는 관문인 드로아에 가면 디도를 만날 수 있으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저기서 믿겠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가 아직 드로아까지 못 왔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내가 지금 새 교인 전도할 형편이 아닙니다. “심령이 편치 못했다” 했는데 영의 평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드로아를 떠나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고후 2:13; 7:5). 갔더니 거긴 더합니다. 또 유대인의 박해 때문인지 영뿐 아니라 몸의 평안도 없습니다. “밖으로는 다름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고후 7:5). 바깥도 난리인데 마음은 평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위로와 기쁨의 소식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반발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차렸답니다.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편지를 보내 준 바울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한다 합니다. 편지를 괜히 보냈나 싶어 괴로워하던 바울은 바닥까지 떨어졌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고후 7:6).

디도가 전한 위로

디도는 편지였습니다. 답장이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꾸중도 하고 겁도 주고 명령도 내렸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꾸중도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답게 잘못도 고쳤다고 디도가 와서 전해줍니다. 바울이 가장 고대하던 답장을 디도가 전했습니다. 편지 가운데서도 가장 반가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저 종이 위에 쓴 글씨 노릇만 한 게 아닙니다. 편지가 됩니까? 종이에 글 쓴다고 편지가 되는 게 아니지요. 글 말고 거기 뭐가 담겨야 됩니까? 예, 마음이 담겨야 편지가 됩니다. 디도가 지금 편지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담겨야 됩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담겨야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디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편지라면 마음을 담을 자리는 내 마음입니다. 디도가 그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되었습니다.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바울의 표현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디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도가 우리를 위로했는데 여러분에게 위로받은 그 위로로 우리를 위로했다 합니다. 디도는 그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먼저 위로를 받았습시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 그 위로를 바울에게 전합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받은 그 위로를 같은 마음을 가진 바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위로와 함께 기쁨도 전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바울이 기쁨을 얻었는데 위로를 받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디도가 고린도에서 먼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은 기쁨에 넘치는 디도를 보고 기뻐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얻은 기쁨을 마음에 잘 담아와 전해준 거지요?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먼저 위로를 받으니 나를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내가 기뻐하니 내 기쁨이 바울에게도 그냥 전달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편지 디도

마음에 담지 않고도 사실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편지배달부 노릇이지요? 배달부야 내용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편지는 다릅니다. 우리가 편지라면 마음에 담지 않고서는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답답해 숨이 넘어가는데 저는 덤덤하게 “가 보니까 괜찮던데요?” 그래 갖고서는 편지가 안 되지요. 그런 이야기라면 바울의 마음에 와 닿지도 않을 겁니다.

편지는 마치 옆 사람에게 촛불을 받아 반대쪽으로 전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불이 붙어 전해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쪽은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 그쪽도 얼른 타오르시오” 하고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지요. 내가 불을 받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사람 바울을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진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돼 잠이 안 오는데 디도도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후 8:16). 고린도 교회에 시킬 일이 있는데 디도가 자원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가졌기에 바울 대신 갑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바울이 직접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소식을 전해주기도 전에 디도를 본 것 자체로 먼저 위로를 받았습니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위로를 전하기 전에 디도가 온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도 급하지요. 하지만 잘 되든 잘 안 되든 동역자가 만난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귀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면 그 자체가 이미 큰 힘이 됩니다.

둘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고후 8:23). 동무라는 말은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논, 곧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코이논입니다. 바울과 디도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일도 같이 합니다. 일할 때도 한 성령 안에서 보조를 맞춥니다 (고후 12:18).

같은 믿음

바울은 디도가 전해준 위로와 기쁨을 듬뿍 담아 고린도후서를 써 디도 편에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위로받았다는 내용에다 구제 현금을 독려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현금입니다. 이 편지를 받거든 바로 준비를 시작하여 바울이 도착하면 현금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였습니다.

그런 얼마 뒤 바울이 드디어 고린도로 가서 겨울 석 달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마게도냐를 지나 바다 건너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달은 항구가 어디였겠습니까? 드로아지요.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서둘러 떠났던 곳입니다. 지금은 영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얼른 가려고 마음이 급한 상황인데도 (행 20:16) 한 주간 동안 머무르며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의 이름이 여럿 나오는데 디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남겨두었을 수도 있고 이 때쯤 크레타 섬으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디도는 크레타로 가서 교회마다 다니며 지도자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 디도에게 써 보낸 편지가 디도서지요? 디도서에서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 했습니다 (딤후 1:4). 바울에게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기에 같은 믿음을 가진 참 아들이 됐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디도가 가진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였겠습니까? 믿음은 다 같지요. 뭘니까? 미썬미다, 그건 아니지요? 몇 년 전 사 둔

땅 앞으로 팔차선 도로가 나게 해 주실 줄 미썬니다, 역대 연봉 받는 신랑을 주실 줄 미썬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디도와 바울이 가졌던 믿음도 주 예수를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디도는 그리스도사람입니다. 불신자였다가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이 압력을 넣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히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깁니다. 디도는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잘 몰랐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 합니다 (갈 2:3).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받아서는 안 된다 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니 다릅니다. 유대인을 거리낌 없이 전도하려면 할례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디도는 여차피 그리스도사람,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받아도 유익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니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저주의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 1:9). 왜 이렇게 강한 말을 합니까? 복음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건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내가 선행을 해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면 그건 주님의 은혜 아닌 율법, 은혜 아닌 내 공로를 믿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산 보기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디도는 하나님 은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유대인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교인들을 현혹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따졌지만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담판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집된 것이 예루살렘 총회고 거기서 결정된 것이 바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주 예수만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몇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 가운데 디도도 들었습니다 (행 15:2; 갈 2:1). 바울도 바나바도 다 유대인입니다. 같이 올라간 사람 가운데도 유대인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디도는 그리스도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할례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증언할 때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 하니 디도는 입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바울은 고린도에도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편지라 부릅니다 (고후 3:2, 3). 우선은 바울 자기가 쓴 편지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그대로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이들이 바로 바울의 편지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다가 바울의 꾸지람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금 하나가 되고 음란 같은 죄도 멀리하고 이제는 다투거나 겨루지 않고 사랑의 원리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바울이 쓴 편지를 읽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바울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글을 쓴 분은 바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바른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거기서 주 예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옛날 율법과 비교합니다. 율법도 편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 편지는 구약 율법과 다릅니다. 편지는 보통 잉크로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쓴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율법을 돌에다 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에 적어 주셔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돌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죄로 굳어버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대신 몸 같은 마음을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돌은 죽어 있지만 몸은 살았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에 빠져 있

던 돌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겔 11:19; 36:26).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돌 판”에 쓴 편지가 아니라 “옥의 심 비” “옥의 심 판” 곧 “몸의 마음이라는 판”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다 편지

디도가 바로 그런 편지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제 마음에 담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다시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서에서 디도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3:3-7).

디도의 마음에 담겼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았기에 디도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한 때 빛나갔지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에 든 우리도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돌 같던 마음이 몸처럼 부드러워졌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읽을 것입니다.

편지라는 형식은 홍수처럼 넘치면서도 정작 편지의 참 뜻은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디도 같은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기쁨을 주고받아 누구든지 주 예수만 믿으면 은혜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널리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